출가열반절 '나를 찾는 8일간의 여정'

3월 26일~4월 2일 특별정진
전국서 집중 수행 · 승보공양

하성미 · 김내영 기자



서울 봉은사는 3월 26일 법왕루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가재일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세속의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 출가'를 당부했다.

3월 26일(음력 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의 길에 나선 출가재일이고, 4월 2일(음력 2월 15일)은 깨달음을 완성하고 완전한 해탈을 이룬 열반재일이다. 부처님오신날, 성도재일과 더불어 불교 4대 명절로 꼽히는 이 두 날은 수행의 시작과 완성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 사찰에서는 이 기간을 '출가열반절 정진주간'으로 삼아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진한다. 참선, 108배, 경전 독송, 철야정진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재가 불자들은 승보공양을 올리며 수행공동체를 뒷받침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출가재일과 열반재일 기간 신행을 점검하고 신심을 다지는 '8일 기도'를 봉행한다. '8일 기도'는 3월 26일 입재해 4월 2일 회향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3월 26일 출가열반재일 특별법회를 열고 정진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봉은사는 이 기간에 1만 배 정진, 보살계 수계식, 〈유교경〉 강좌 등을 진행한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주제로 팔상성도(八相成道) 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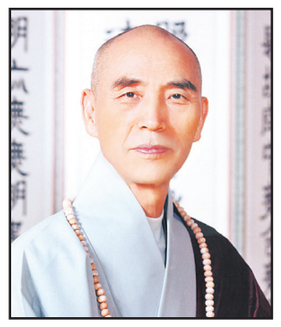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나눈 팔상성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통도사 경학원의 선행 스님(26일),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27일), 전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28일),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29일)이 법사로 나섰다. 이어 통도사 유나 영일 스님(30일),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31일), 안양암 감원 종현 스님(4월 1일)이 법석을 잇는다. 회향일인 4월 2일에는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쌍림열반상'을 주제로 법문하며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출가재일 당일인 3월 26일 대광명전에서 '출가재일 초청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제8대 린포체이자 티베트 최대 종파인 겔룩파 소속 캉쎄르 린포체가 초청돼, 한국 불자들에게 티베트 불교의 지혜를 전했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인호 스님)는 천진불들에게 불연을 맺어 주는 법석을 마련했다. 3월 26일 열린 '우리 아이 스님과 인연 맺기-유발상좌 수계의식'에서는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마정수기와 수계 의식이 이뤄졌다.

각원사 조실 경해당 법인 대종사 원적

3월 23일, 천안 각원사서
영결식 27일 문도장 엄수



천안 각원사 조실 경해당 법인 대종사〈사진〉가 3월 23일 주석처인 각원사 경해원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납 80세, 세수 96세.

분향소는 경해원에 마련됐고 영결식은 3월 27일 오전 10시 대웅보전 앞에서 문도장으로 봉행된다. 다비식은 각원사 청동대불 다비장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경해문도회에 따르면 법인 대종사는 "본래면목은 모습이 없으나 중생의 업보로서 연기를 따라 시시각각으로 간단함이 없이 삼세의 연기는 처음과 끝이 없도다"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경해당 법인 대종사는 1931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했다. 1946년 해인사에서 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4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51년 해인사 법보학원을 수료하고 1958년 마산 해인대학(현 경남대), 1961년 동국대 사학과, 1963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1969년 유학 차 일본으로 건너가 1987년 일본 대동문화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일본 도쿄 명월사, 1977년 천안 각원사를 창건했다. 2013년부터 각원사 조실로 주석하며 후학을 제접했다. 2020년 1월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평화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영결식 차주 상보〉

유재상 충청지사장

'총화인권위' 발족…"평등 사회 구현"

총화종, 3월 20일 실상사서
위원 위촉 …인권 헌장 선언
4월 15일 제1회 인권상 수여


대한불교총화종은 3월 20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대적광전에서 총화인권위원회를 발족하고 종단 차원의 첫 사회공헌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3월 20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대적광전에서 총화인권위원회를 발족하고 종단 차원의 인권 활동 전개의 시작을 알렸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인권 헌장 선언문'을 통해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로 국가와 사회가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총화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연대와 책임의 자세로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개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불교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총화인권위원회 출범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는 여수령 편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곧 인권의 근본"이라며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총화종과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3월 11일 인권사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선원장 지광 스님은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연결된 상생의 관계 속에 있다"며 "개인의 인권이 훼손되면 공동체의 평등과 공정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 회복을 돕는 일이 곧 수행이자 실천"이라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무부장 법장 스님은 인권위원회 설립 경과보고에서 "사회 변화 속에서 갈등과 차별, 인권 침해 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이라며 "불교의 자비와 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위원회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총무원과 인권단체 간 논의를 시작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방안과 정관, 위원 구성 원칙 등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화인권위원회는 총무원장 혜각 스님을 위원장으로 총무부장 법장 스님(수석위원)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안진삼 법문사(자문위원), 현대불교신문(언론자문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상담·자문, 차별 해소와 화합 증진, 정책 제안과 인권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권위원들은 성혜 스님이 대표 낭독한 선서문에서 "어떠한 차별과 편견도 배격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 양심과 책임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총화종은 오는 4월 15일 영동 실상사에서 창종 67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하고 제1회 총화인권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매화 피는 순간, 꿈이 피어난다"

화엄사, 개화 기념행사 개최



구례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화엄매'의 만개에 맞춰 개화 기념행사를 열고 지리산 봄의 시작을 알렸다.〈사진〉

3월 21일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농악을 시작으로 합창과 헌다, 불교의례, 축하공연,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인사말과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사부대중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각황전 홍매화에는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빛과 정성 어린 기도가 어우러진 인연공덕이 깃들어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며,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화엄사는 행사 준비에 공헌한 장아름·박대성·이진규·김희진 씨에게 표창패를 오승재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가수 김희진이 홍매화 헌정곡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편 화엄사는 제6회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접수 기간을 4월 5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서 동백꽃 추억 담아볼까

4월 30일까지 사진 공모전

동백꽃 붉게 물든 선운사에서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회 선운사 동백꽃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선운사를 찾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붉게 피어난 동백꽃과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을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담아내면 된다. 응모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1인당 최대 2점까지 작품명, 이름,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촬영은 선운사 경내에서만 가능하다. 동백숲 풍경은 물론 인물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도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10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 관련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출품과 문의는 선운사 이메일(seonunsa@daum.net)이나 종무소(063-561-1422), 홈페이지(www.seonunsa.org)를 통해 가능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남대 불교동아리, 신입생 대거 입회

2년 연속 100명 이상 입회해
명상·템플스테이 등 호응



전남대학교 불교문화동아리 '마음쉬는곳'(회장 유환희, 이하 전대불생)이 3월 18일 제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2026년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환영회에서는 총 110명의 신입 회원이 입회했다. 지난해 140명에 이어 올해도 100명이 넘는 신입생이 참여하면서 최근 2년간 폭발적인 회원 증가로 대학가 불교동아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

전대불생은 그간 정기법회와 함께 템플스테이, 사찰문화탐방, 명상, 경전 공부는 물론 다도·독서·공예·보드게임·베이킹 등 청년층의 관심을 반영한 활동으로 입소문을 타며 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환영회에는 지도법사 진훤 스님(선재사 주지),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 시공 스님(만경사 주지)을 비롯해 김선헌 지도교수, 이지영 교수, 오주영 동문회장, 집행부와 신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도법사 진훤 스님은 "최근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체험을 통해 다가오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활동과 사찰의 지원이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입생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도 이어졌다. 유환희 제66대 회장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훗날 돌아봤을 때 '마음쉬는곳'에서의 시간이 삶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선헌 지도교수는 "동아리 활동 속에서 얻은 인연과 경험이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대 대불련, 불자 100명 '새 인연'

3월 19일 개강법회 봉행
신입 회원 100명 입회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북지부 전북대지회(지도법사 우경 스님, 지회장 오태준)가 '2026년도 개강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월 19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5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합장과 절하는 법 등 사찰 예절과 불교 기초를 배우며 새 학기 신행의 문을 열었다.

지도법사 우경 스님은 "명상과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교를 쉽고 바르게 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생활 속 수행을 통해 참다운 불자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태준 지회장은 "올해 100명의 신입 회원이 입회했다"며 "졸업 때까지 함께 수행하고 불자로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입 회원 김혜원(전북대 IT응용시스템공학과) 학생은 "불교가 궁금해 가입했는데 처음 참가한 법회가 경건하고 가슴 뛰는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템플스테이와 명상, 사찰순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 불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두희 대불련 전북지부 회원은 "청년 불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역 사찰과 단체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불련 전북지부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통해 총 143명을 맞이했다. 전북대 100명, 원광대 9명, 한국농수산대 30명, 군산대 4명 등이 새로 입회해 기존 회원 포함 약 220여 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전북교구,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훈련병 2000명 오계 수지



태고종 전북교구(종무원장 연수 스님)는 3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훈련병 20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종무원장 연수 스님은 훈련병들에게 오계를 설하며 정진을 당부했다. 연수 스님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아 강건한 군 생활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며 "훗날에는 지혜와 덕을 갖춘 국가의 든든한 동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회 후에는 태고종 전북교구가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수계법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군 장병들의 수행 환경 개선과 원활한 신행 활동에 지원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